

난지기존소유(難知且既存所有)

| 용타스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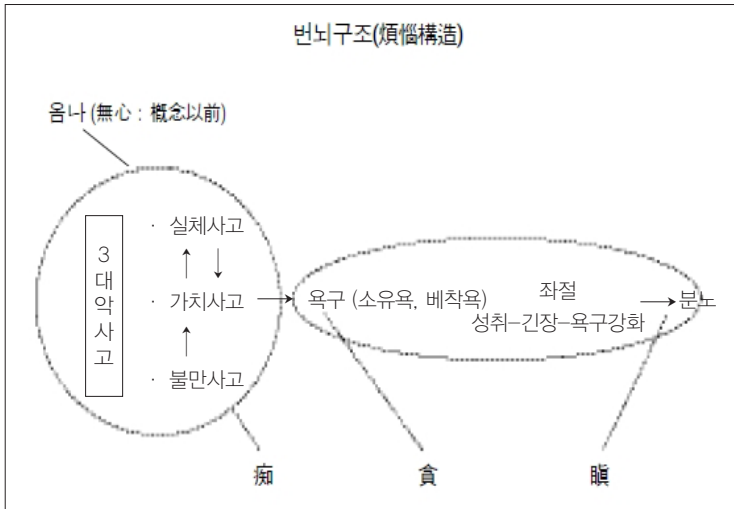
“기성(既成)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이요, 미성(未成)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기존(既存)은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있는 것이다. 그 중 난지기존(難知既存)은 쉽게 알 수 없는 기존(既存)이다.” 그리고 바로 개념이전인, 늘 이미 있는 자성(自性)인 기존을 깨닫는 것이 행복 중에서도 가장 큰 행복인 해탈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3부)

017. 번뇌구조(煩惱構造)와 수심체계(修心體系)와 행복론(幸福論) :

인생이란 결국 행복론이다. 행복을 논하려면 행복을 가로막는 원인인 번뇌를 알아야 하고 번뇌를 해결하는 길 <수심(修心)하는 방법>을 알아야 좋을 것이다.



마음을 닦으려면, 곧 수심(修心)을 하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번뇌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구조로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번뇌구조(煩惱構造)는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十二緣起)의 다른 판이다. 12연기는 중생(사람)이 어떤 경로를 밟아 고통스런 삼세(三世)에 윤회하는가를 열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첫 시작이 무명(無明)이다. 무명이란 밝지 않음이요 어리석음이다. 무엇에

어리석다는 것인가? 사실(事實)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이치(理致)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즉 인생의 주체인 나(自我)라는 것이 연기(緣起)적 존재로서 무아(無我)요, 비아(非我)요, 공(空)이요, 비실체(非實體)요, 무념무상무주(無念無相無住)요, 무유주객(無有主客)등인데 그 자아가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원초적인 어리석음, 곧 무명(無明)이다. 마명 대사는 대승기신론에서 무명(無明)을 단적으로 정의하여 주객의식(主客意識)이라 하였다.

〈번뇌구조〉는 12연기의 다른 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리한 이유는 보다 간단명료하게 전(傳)하기 위해서이다.

번뇌구조는 간단히 〈있다-좋다-싫다-쌍〉으로 생각해버리면 된다.

있지도 않은 것을 무엇이라 이름을 붙이면서 〈있다〉 하고, 나아가 그냥 있는 것들을 〈좋다〉 혹은 〈나쁘다〉 하니 어리석음(癡)이요, 없는 그것을 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니 욕구(貪)요, 욕구한대로 잘 안되니 ‘쌍~ㅇ’하는 속상함(瞋)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다.

[개념 이전(概念以前)] : 번뇌구조 논의의 출발점을 개념이전(概念以前)이라 했다. 개념이란 국어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다.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의 기초가 개념이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 형, 혹은 동생이라고 개념화함으로써 삶의 편의도(便宜度)를 높인다. 그러나 이 개념화가 존재를 죽인다. 앞에 놓인 물건에 대해 〈연필〉이라고 개념화한다. 앞에 놓인 그 존재 자체는 인간들이 자기 삶의 편의상 〈연필〉이라는 개념 하나로 한정하는 사이에 그 존재가 지닌 9999개의 속성을 다 지우게 된다. 인간이 연필이라고

한정한 그것은 나무이기도 하고, 흑연이기도 하고, 공기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며, 고체(固體)이기도 하고, 떨감이기도 하고, 무기(武器)이기도 하고, 낭만이고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며, 산이기도 하고, 장애물이기도 하다.

개념이전(概念以前)이란 무엇인가? 개념이전이란 어떤 존재에 개념을 부여하기 이전이다. 그것은 태허(太虛)요, 태(太初)요,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세상이요, 무심(無心)이요, 물자체(物自體)요, 무념무상무주(無念無相無住)요, 무유정법(無有定法)이요, 자성(自性)이요, 여여(如如)요, 여래(如來)요, 실상(實相)이요, 무위(無爲)요, 무위(無位)이다. 사람의 의식은 연필이라는 개념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모든 속성을 죽이고, ‘연필’이라는 한 개념에 고착(固着)으로써 경화(硬化) 과정에 들어선다. 곧 〈분별 - 시비 - 집착〉이다. 분별시비집착(分別是非執着)의 결과, 인간은 고통과 전쟁의 나라(奈落)으로 떨어진다. 개념화가 고통의 원조(元祖)라는 것을 수궁하는 것은 큰 깨달음의 하나이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고성제(苦聖諦)와 집성제(集聖諦)의 깨달음이다. 이에 지옥(地獄)인 개념(概念)으로부터 벗어나 개념이전(概念以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當爲)감을 느끼게 된다. 개념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요, 해탈(解脫)이요, 구원(救援)이다. ‘연필’이라는 개념에서 ‘연필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이 논지가 수궁(首肯)된다면, 이것은 해탈과 구원의 서광(瑞光)이 비쳐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개념이전이란 무엇일까? 곧 연필이라는 개념이전의 그 존재 자체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연필’이 아니라, 연필이라 이르는 ‘그것 자체’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 자체(自體, 實相: Ding an

sich)》는 그 어떤 식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어서 무위(無爲)의 풍광(風光)으로 드러나 사람의 해탈을 결정지어준다. 범부는 <연필>이라 개념화하면서 그 <연필>이 <연필 자체>라고 믿는다. 그런 사람은, 서양 철학자들의 말을 빌자면 소박실재론자(素朴實在論者)이다. 독일 유학에서 12년 간 칸트의 저서, 순수이성비판(純粹理性批判)을 연구하여 박사가 되신 자의 철학 스승, 서동익 선생님의 말씀이 평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소박실재론 권에서 사는 사람은 별레와 큰 차이가 없다.”하신 말씀이다. 씹어볼수록 일리(一理) 있는 말씀임을 수없이 느껴온 바이다. 개념이전의 경험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단상(斷想) 뒤편에서 강력히 다루어지겠지만 일단 개념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요, 해탈이라는 것을 거듭 귀뜸해 둔다.

[실체사고(實體思考)] : <개념이전(概念以前)>에서 <개념(概念)>으로의 첫 추락(墜落)을 실체사고(實體思考)라 한다. 곧 이름을 붙이는 심리과정을 말한다. 예: 나, , 그이, 그녀, 책상, 책, 의자, 사람, 동물, 산, 하늘, 꽃, 개나리꽃, 나무, 자작나무, 철학, 과학, 종교, 하나님 등등... 국어사전의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실체사고이다. 왜 이름을 붙일까? 그 어떤 것들이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으므로 사람끼리 그것들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편의상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목이 마른 아버지가 딸에게 “애야, 물 한 컵 떠오겠니?”한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물>, <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속되어 있지 않으면 딸이 아버지에게 물을 대령하는 행위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크게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도 필요한 편의물(便宜物)이다. 금강경식의 표현으로는 <컵卽非컵是名컵>:

컵은 컵이 아니고, 편의상 일러 컵이라 함>이다.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니 불러 쓰고 다시 놓으면 되는 것을, 놓지 못하고 <분별-시비-집착>을 하니 고통과 전쟁이 따를 수밖에.

[가치사고(價値思考)] : 그 단순한 듯한 <개념>은 동시에 가치성을 전제한다. 앞에 놓인 한 사물을 ‘연필’이라고 실체(實體)로 규정할 때는 이미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화 <실체시(實體視)>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실체시(실체사고)와 가치시(가치사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동시(同時)적으로 전제된다. 어떤 사물에 가치부여를 하는 정도만큼 그 사물에 대한 인력(引力) 내지 척력(斥力)이 발생한다. 긍정 가치는 끌어오려 하고 부정 가치는 배척하려고 한다. 그 <인력-척력>의 정도만큼 긴장이요, 스트레스요, 고통이요, 전쟁이다.

[욕구(欲求)] : 가치사고에 이어 욕구라는 <싶음>의 마음이 일어난다. 욕구의 대상은 많고 많다. 의식주, 건강, 돈, 권력, 명예, 사랑, 인정, 지식, 공부, 체능, 예능, 학문, 사업, 다양한 기술, 여행, 구매 등등...

[분노(忿怒)] : 욕구(싶음)는 실현되면 좋을 터이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는다. 100명이 다툰다. 누구나 1등이고 싶지만 99명은 떨어진다. 속이 상한다.(분노) 모든 욕구에는 거의 분노가 따른다. 설혹 욕구가 실현된다고 해도 그 실현 과정이 그지없는 긴장과 갈등이요, 실현의 기쁨은 잠시일 뿐, 또 곧장 다른 욕구의 마당에 들어선다.

[불만사고(不滿思考)] : 무수히 반복되는 <욕구→분노>의 심리과정에서

연적으로 파생되는 신념체계 하나는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불만사고(不滿思考)>이다. 이 불만사고는 행복론에 있어서 깊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사람이 불행한 순간에는 언제나 그 불행 밑에 불만사고(不滿思考)가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다. 만일 불만사고 하나만 완전하게 척결해버린다면 불행은 완전하게 99.99% 사라져버린다. 불만사고는 다른 표현으로 부지족사고(不知足思考: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고)이다. 곧 불만사고를 만족사고, 곧 지족(知足)사고로 전환하기만 하면 행복의 99.99%가 해결된다는 뜻이다. 불교의 중대경전인 유교경(遺敎經)이나 법구경(法句經) 등에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이 힘주어 강조되고 있다. 지족(知足)!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덕목이다. 간단히 번뇌구조를 정리 설명했다. 번뇌구조를 불교의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 정리한다면 실체사고, 가치사고, 불만사고는 사고(思考)를 잘못하는 것이니 치(癡), 곧 어리석음이요, 욕구와 분노는 탐(貪)과 진(瞋)일 터이다. 진정 지고한 행복해탈(幸福解脫)을 원하는 마음 공부인이라면 필히 이 번뇌구조(煩惱構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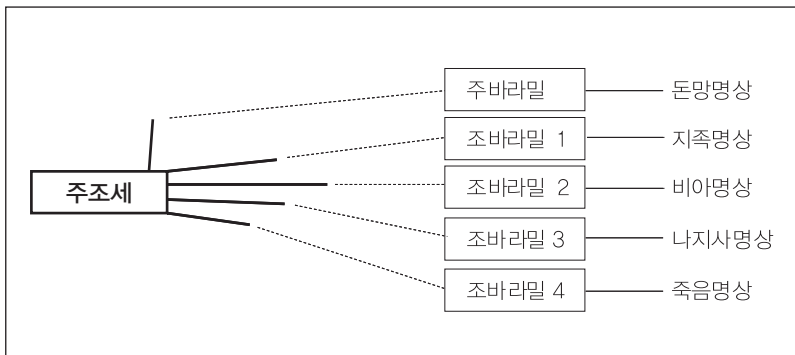
018. 수심체계(修心體系) :

번뇌구조가 그러하다면 그 번뇌를 정화(淨化)하는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수심(修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가 권장하는 공부길 체계는 주조세 <主助細 : 주바라밀(主波羅蜜) - 조바라밀(助波羅蜜) - 세바라밀(細波羅蜜)>로 되어 있다. 손바닥을 짚으면 엄지 하나와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네 개가 있다. 이것은 주(主)바라밀(波羅蜜) 하나와 조(助)바라밀(波羅蜜) 네 개에 비유된다.

진정 지고한 행복해탈(幸福解脫)을 원하는 마음 공부인이라면
필히 번뇌구조(煩惱構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가 운영하는 수련장에는 일반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이 있는데, 개념이전에 대한 깨달음은 고급과정에서 다루고, 네 개의 조바라밀(助波羅蜜)은 중급과정에서 다룬다]

주바라밀(主波羅蜜)인 돈망(頓忘)명상은 개념이전(概念以前)을 깨닫고 이를 반복 관행(觀行)하는 것이다. 지족명상은 불만사고(不滿思考)를 지족사고(知足思考)로 전환함으로써 행복의 99.99%를 해결하는 명상이다. 비아(非我)명상은 실체사고(實體思考)와 가치사고(ㄷ뤄뉑 를 벗어나는 명상이요, 나지사명상(나지사: 구나-졌지-감사의 약자)은 분노의 대상을 구나, 졌지, 감사로 관조함으로써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명상이며, 죽음명상은 언제라도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수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사유하여 탐욕에서 벗어나는 명상이다. 이러한 주조세(主助細) 바라밀(波羅蜜)은 간단한 설명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련장에서 보다 섬세하고 치열하게 관행(觀行)함으로써 소기의 체험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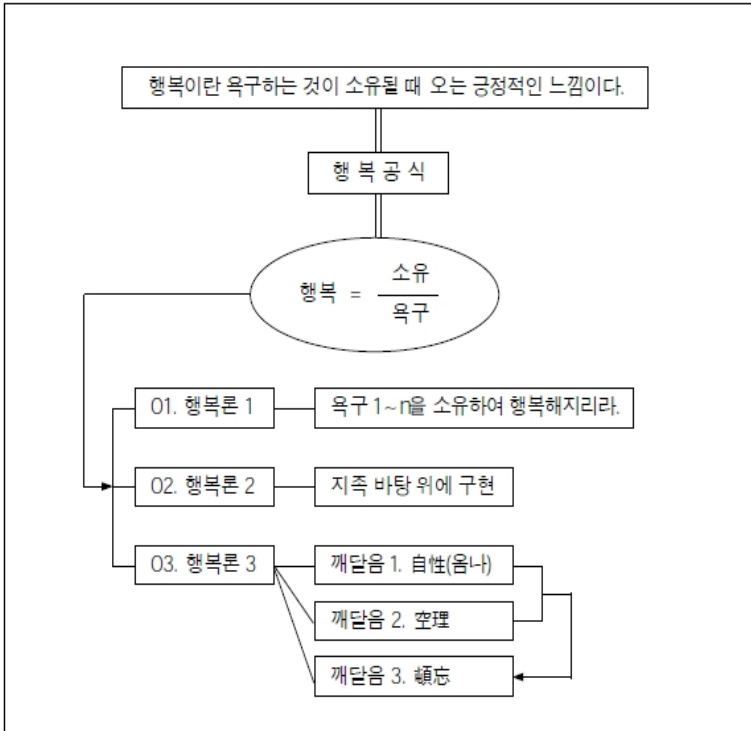
019. 행복 :

번뇌구조(煩惱構造)니 수심체계(修心體系)니 하는 것들은 결국 행복론의 일환이요, 행복론을 위한 토대 작업이다. 번뇌구조나 수심체계는 또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리라 본다. 자,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이 왜 그토록 필요하며, 행복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등을 논해보자. 우선 행복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행복이라 할까? 건강? 부(富)? 권력? 명예? 사랑? 상(賞)?... 이런 것들은 행복 자체가 아니라 행복의 조건일 뿐이다. 행복이 목적이라면 이런 것들은 행복의 방법이요, 조건들이다.

그러면 행복 자체는 무엇인가? 건강할 때 결과적으로 따라 오는 것, 부(富)를 갖추었을 때 결과로 따라오는 것, 상(賞)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 그것은 기쁨이다.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이다. 행복이란 느낌이 좋을 때 붙여지는 이름이다. 곧 기쁜 마음,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이 행복이다. 또한 곧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바로 이 부분에 확연한 눈뜸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인생이란 행복론인데 행복이 무엇이나에 흥미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논하라! 행복이란 감정이요, 기분이요, 느낌이다. 기분이 좋으면 행복이요, 기분이 나쁘면 불행이다. 기분 좋자는 것이 인생이다. 해탈이니 구원이니 하는 것도 기분이 우주적으로 탁 트여 시원해지고 개운해진 상태일 것이다. 내 아내, 내 아들딸을 바라보되 should나 must에 집중하는 것보다 feeling에 집중하는 아버지가 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020. 행복의 길 :

행복이란 욕구하는 것이 소유될 때 오는 긍정적인 느낌이다. 곧 사람의 행복이란 <욕구>와 <소유(성취)> 두 가지 요인(要因)으로 결정된다. 즉, 욕구하는 것을 소유(성취)하면 행복(good feeling)해진다. <욕구와 소유>를 잘 살펴보면 행복론이 보인다. 욕구(Need)란 인간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의식 혹은 무의식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소유(Having)란 욕구의 대상(내용)을 손에 넣는 것이다.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량이 많아진다. 욕구가 많아지면 행복량이 줄어든다. 곧 행복은 소유에 비 하고 욕구에 반비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행복공식이 도출되고, <소유량 극대화>와



〈욕구의 극소화〉의 길을 묻게 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의 과정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 할 수 있다.

한 신념(행복공식)에서 여러 차원의 행복론이 도출될 수 있는데, 세 차원으로 정리한다면 [행복론1, 행복론2, 행복론3]이다.

〈1〉 행복론1: 구현에 상응하는 행복이다. 구현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때의 행복, 구현과정의 행복, 구현했을 때의 행복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불안, 조, 긴장, 갈등, 두려움, 좌절, 다툼 등으로 점철된다. 곧 고통과 전쟁이다. 왜 그럴까?

〈2〉 행복론2: 완료형 소유를 통찰(지족)함으로써 넘치는 소유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넘치는 행복을 산다. 〈행복의 99.99% 확보〉 [불행한 자는 없는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자는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하버드 대학 모 행복학 박사의 말씀이나 [Happiness is not having what you want, but wanting what you have: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소유함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원함이다]라는 어느 랍비의 말씀 등을 촌철로 유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행복론3: 무한(無限)을 깨달을 때 온다.

깨달음 1 : 기존소유¹⁾는 가지기존소유(可知既存所有)와 난지기존소유(難知既存所有)²⁾로 나뉘는데, 난지기존소유 중 자성(自性 : 개념이전의


1) 기성(既成)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이요, 미성(未成)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기존(既存)은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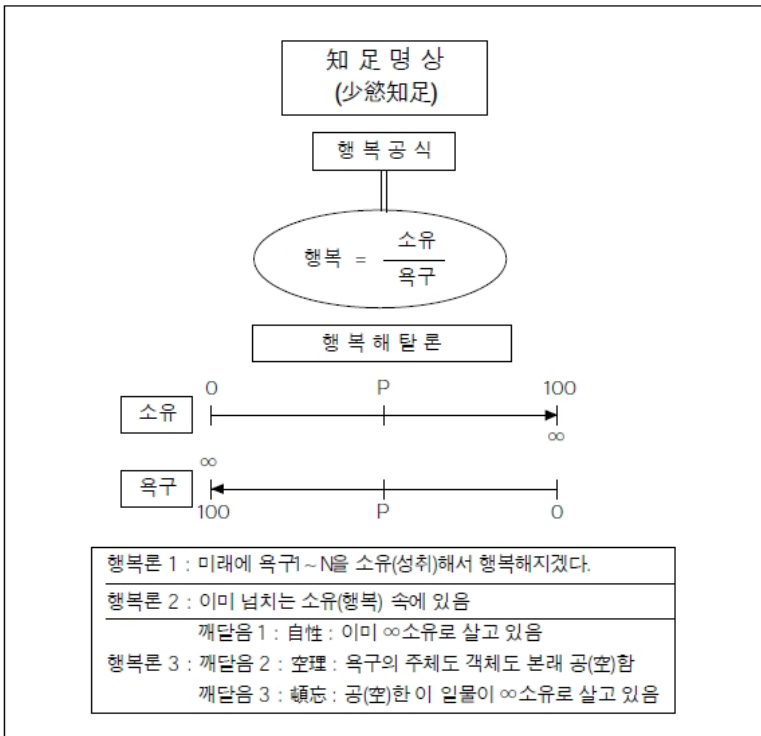
2) 가지기존소유(可知既存所有)와 난지기존소유(難知既存所有): 가지기존이란 기존(既存) 중 누구나 대체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요, 난지기존은 쉽게 알 수 없는 기존(既存)이다.

의식상태)이라는 난지기존소유를 깨달음으로써 무위해탈³⁾을 확보한다.

깨달음 2 : 공(空 : 無我, 非我, 人無我法無我, 我空法空, 卽非, 無念無相無住)을 깨달음으로써 무위해탈을 확보한다.

깨달음 3 : 위 깨달음1과 깨달음2를 통합하는 의식을 일미(一味)로 경험함으로써 무위해탈을 확보한다.

다음 단상(斷想)부터는 행복론 각론(各論)이 다루어질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3) 무위해탈(無爲解脫)이란 걸림없는 의식(意識)을 의미한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용타스님은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주지, 성륜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저자 G. I. 구르지에프 | 역자 폴라 | 출판사 산티 | 정가 25,000원

20세기의 영적 스승 구르지에프와 함께 진리를 찾아 떠나다!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구르지에프, 젊은 날 그가 품은 질문들과 그 질문의 여정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 책은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연

개척자로서 선구적인 삶을 살다간 구르지에프의 젊은 날에 대한 자전적인 기록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의문에 대한 답과 가르침을 찾아 이집트와 중동, 중앙아시아의 깊숙한 곳까지 탐험한 내용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놀라운 사람'이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두드러지는 사람, 본성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나약함을 공정하고 관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안의 의문을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15년에 걸쳐 수없이 구도의 여정에 나섰던 젊은 구르지에프의 고민과 모색, 탐구와 모험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신 · 간 · 안 · 내

(재) 행복 마음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저자 용타 | 출판사 대원사 | 정가 12000원

용타 스님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마음 닦는 일에 대한 불교 관점의 입문서이자 지침서다. 불교월간지 『대중불교』 등에 실어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복과 행복의 조건, 생활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의로의 산책, 명상 잡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0분 해탈 -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저자 용타 | 출판사 불광 | 정가 12000원

생활도 수행이다!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10분 해탈』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뿐 아니라, 선불교를 바탕으로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을 끌어들이며 '동사섭(同事攝)'이라는 집단수행프로그램을 만든 저자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대원사,

1997년)에 이은 두 번째 수행 지침서다.

이 책은 불교 월간지 『불광』에 3년간 연재해온 <생활 수행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매일 1편씩 10분간 읽으면서 해탈을 이루어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동사섭 수련프로그램 안내

동사섭(同事攝)이란, 불교의 사섭법(四攝法 : 布施攝·愛語攝·利行攝·同事攝) 중의 한 개념이다. 사섭법이란 보살이 중생을 향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베풀고(보시섭), 경우에 따라서는 자애 어린 말로 더붙고(애어섭), 또는 이로운 일로 도와주고(이행섭), 나아가 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동사섭) 삶의 태도를 말한다. 본 동사섭수련회에서는, 동사섭의 개념을 사섭법 중의 동사섭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보시, 애어, 이행을 다 아우르며,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 무정의 개개가 낱날이 우주의 주인공이되 낱날이 서로 평등하게 어울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만 존립할 수 있으니 우주 전체가 한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일체(一體) 사상을 뜻매김하여 쓰고 있다.

동사섭 수련프로그램은 용타스님이 개발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다. 칼 로저스의 엔카운터를 씨앗으로 하여 1980년부터 수련하여 왔다. 현재는 <삶의 5대 원리-정체(正體)·대원(大願)·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의 원리>를 학습 주제로 하여, 의식의 전개 과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지인(至人)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이론과 실습의 체계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과정(5박6일), 중급과정(3박4일), 고급과정(3박4일)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평소에는 홀수 달, 셋째 주 월요일에 개설되어 있다.

홈페이지 : <http://www.dongsasub.org>

연락처 055-962-1070 / 이메일 office@dongsasub.org